

## 역대급 고수온·일본오염수·소비위축...바다양식 피해 눈덩이

수온 1도 상승은 육상 기온 5도 상승에 버금...어패류 치명적 가을비 내린 후 바닷물 온도 차츰 내려갈 것으로 전망

역대급 고수온은 장기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위축 여파로 바다 가두리 양식 어가들이 3중고에 내몰리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현재 양식 어가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고수온 현상은 대규모 피해를 불러온 지난 2018년 상황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수온 피해는 지난 7월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4일 간 집중됐다.

전남 여수·완도·진도 등 어가 153곳에서 645만3000마리의 어류가 폐사한 가운데 잠정 피해액만 총 104억8000만원에 달한다.

고수온에 의한 양식어류 폐사는 여수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여수 삼산, 화정, 남면, 돌산, 경호 등 122곳에서 조피볼락, 부세, 조기, 능성어, 농어, 말쥐치, 돌돔, 참돔, 감성돔 등 604만1000마리가 폐사했다. 피해액은 98억 3200만원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해상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한 완도지

역 고수온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외, 신지, 고금지역 어가 30곳에서 넘치, 조피볼락, 강도다리 등 40만마리, 진도 임회 지역 1곳에서도 넘치 4000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8일 기준 완도해역 바닷물 수온은 28~29도를 오르내렸다. 고수온 현상은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돼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상가두리 전북 양식장의 최적 바닷물 온도는 24~26도지만 28~29도대의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전북 폐사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는 국내 전북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로 꼽힌다.

하지만 고수온은 장기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 우려 확산, 소비위축에 따른 유통량 급감은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양식어가의 근심은 깊어만 가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kg당 10~12마리 크기의 전북 가격은 2만2000원 대로 지난해 3만~3만9000원대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했다.

상품인 kg당 8~9마리로 구성된 전북 가격도 지난해 4만6000원에서 올해는 2만5000원으로 가격이 반토막 났다.

가격 폭락도 문제지만 고수온에 대응해 출하를 서두르고 싶어도 소비위축 때문에 출하를 못해 폐사만 늘어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전북 양식어가 A씨는 “10년 가까이 전북양식을 하면서 올해처럼 힘든 경우는 처음”이라며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광어와 우럭을 양식하는 어가들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수온으로 대량 폐사하면서 팔 물고기가 없어서다.

완도군 군외면에서 광어양식을 15년째 하고 있는 B씨는 “출하 가격은 올라가는데 팔 물고기가 없다”며 “폐사 물고기들은 한 달 정도만 키우면 판매할 수 있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처럼 양식 어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고수온은 올해 역대급으로 지속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남지역 고수온 경보는 도암만, 가막만, 함평만, 득량만, 여저만 일대에서 계속 발효 중이다.

특히 여수 여자만은 현재 고수온 경보 기준인 28도 이상의 수온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다.



전남 여수시 남면 등 양식장에서 양식 중이던 우럭 등 물고기가 고수온에 집단 폐사했다. (사진=독자제공)

전남도 관계자는 “육상 양식장은 액화산소를 투입해 수온을 낮추고 먹이량을 줄이면 어류 폐사 규모를 줄일 수 있지만 바다 가두리 양식장은 뾰족한 방법이 없어 바닷물 수온이 내려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립수산물과학원은 13일 우리나라 전역에 가

을비가 예보된 가운데 5~20mm 강수량을 기록할 경우 바닷물 수온이 차츰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현재 전남지역 주요 해역 바닷물 온도는 여수 28도, 완도 27도, 진도 26도를 보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주말까지 전국 ‘가을비’...평년보다 기온은 높아

이번 주말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은 13일 수시 예보 브리핑을 열고 “기압골과 동풍 영향으로 목요일(14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며 “금요일(15일)부터 일요일(17일)에는 저기압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에 많은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이날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30~80mm ▲강원영서, 충청권 20~60mm ▲경상권, 전라권 10~60mm ▲제주도 10~40mm다. 특히 강원영동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mm



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으로 확대된 비는 내일 아침 수도권을 시작으로 점차 약화하겠지만, 15일부터 다시 시작돼 17일까지 이어지겠다.

기온은 다음 주 중반까지 남쪽의 따뜻한 수증기 유입으로 상승하다가, 후반에는 북쪽의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내려가겠다.

기동취재본부

### ‘코로나19 대응 앞장섰는데...’ 전남 3개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심각

목포시의료원 3년만에 4억 흑자→적자 순천의료원 적자↑·강진의료원도 악순환 병상가동·외래 급감...간호인력 공백 여전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팬데믹 동안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해 이후에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3개 공공의료원도 외래환자와 병상가동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5개 지방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올 6월 기준 평균 46.4%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80.5% 대비 평균 41%나 떨어졌다.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순천·강진의료원과 목포시 산하 목포시의료원 등 전남지역 3개 공공의료기관도 마찬가지이다.

팬데믹 직전 2019년 병상가동률이 84.88%에 달했던 목포시의료원은 지난 6월 46.2%로 전체 병상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순천의료원은 같은 기간 84.61%에서 54.9%로 35%로, 강진의료원은 66.67%에서 37.47%로 크게 줄어들었다.

하루평균 외래환자수도 큰 폭으로 감소해 3년만에 순천의료원은 35%, 강진의료원 19%, 목포시의료원 9% 축소됐다.

환자가 급감하면서 경영실적도 악화됐다. 목포시의료원은 2019년 당기순이익이 4억 여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올 상반기에만 24억 여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또 순천의료원은 8억 9000여 만원에서 14억

원으로 적자폭이 크게 증가했으며, 강진의료원은 19억 9000여 만원에서 7억여원으로 감소했으나 하반기 실적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19 당시 이탈한 의료인력을 다시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꼽고 있다. 올 6월 기준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에서 의사 정원을 충족한 병원은 16곳, 간호사 정원을 채운 병원은 4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남의 경우 의사는 정원을 채우고 있으나 3곳의 지방의료원 모두 간호사 공백은 여전한 상황이다.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치료해줄 의료진이 없어 일반환자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김원이 의원은 주장했다.

변용일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